

경제

유럽위기 악화... 한국경제 다시 비상등

수출·내수... 내수외환 2분기 성장률 반토막

내년 전망도 암울... 장기 저성장 L자형 흐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경제 전문가들은 2%대 성장을 기정사실화했다. 스페인의 구제금융 요청 가능성이 부각되는 등 유럽 재정위기가 다시 고조된 탓이다.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제 전망은 '상저하저(上低下低)'로 이미 바뀐 상태다.

나이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40년간 성장률이 3% 아래로 내려간 것은 5차례였다. 1980년 -1.9%로 첫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가 돌아온 1998년에는 -5.7%로 가장 낮았다.

서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가계부채를 비롯한 국내 경제 문제도 무시 못할 악재다. 가계부채는 소비를 위축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L자형 경기 흐름 우려 고조=올해 뿐 아니라 내년 경제전망도 밝지 않다. LG경제연구원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했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전망치 중 가장 비관적인 것이다. 한국은행은 3.8%, 주요 투자은행(IB) 평균은 3.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0%, KDI는 4.1%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 2%대 그칠 가능성"=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26일 진단했다.

중국의 올해 2분기 성장률은 7.6%로, 3년 만에 처음으로 7%대로 떨어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8%로 전망하면서 경착륙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들 전망치는 상반기보다 크게 낮아진 것이다. 한국 경제가 내년에도 저성장의 흐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결과다. 'L자형' 경기 흐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L자형 흐름은 경기가 바닥권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것의 미학이다.

한국은행의 3% 성장률 목표는 확률상 중간값으로 이미 2%대 성장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해석도 있다.

미국의 경기악화는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다. IMF는 이달 초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0%로 낮췄다.

심상치 않은 유럽 위기가 스페인, 이탈리아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 국면으로 넘어가면 예상보다 훨씬 큰 충격이 될 수도 있다.

한은이 이날 내놓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에 따르면 2분기 성장률은 작년 동기대비 2.4%에 그쳐 33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1분기 성장률 2.8%로 상반기 전체 성장률은 2.6%로 추산됐다. 이는 한은이 예초 예상한 2.7%보다 낮은 것이어서 올해 3% 성장률 가능성 물 건너간 것이 아

유럽 재정위기는 올해 초만 해도 유럽 중앙은행(ECB)의 정책 대응으로 안정되는 듯했다. 그러나 최근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이 부각되면

유럽 전역의 은행 부실과 글로벌 신용위기, 극심한 경기침체로 발전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

한국 저임금 근로자 비중 또 늘어...OECD 국가중 최고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또다시 상승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데다 아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주들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6일 OECD의 '2012 고용전망'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저임금고용 비중은 전년(25.7%)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25.9%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전년인 2009년에도 우리나라의 저임금 고용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1위였다.

2010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저임금고용 비중은 16.3%로 우리나라보다 9.6%포인트 낮았다. 특히 이탈리아(9.5%), 스위스(9.2%), 포르투갈(8.9%), 핀란드(8.1%), 벨기에(4%) 등은 저임금 고용 비중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저임금고용 비중이 계속 상승하면서 OECD 1위라는 불명예가 지속되는 것은 최저임금 수준이 낮은 것과 무관치않다. 통상 저임금노동 비중은 최저임금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 /연합뉴스



천도복숭아 맛 보세요

26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직원들이 올해 첫 출하된 천도복숭아를 선보이고 있다. 천도복숭아는 털이 없는 복숭아로 털이 있는 복숭아보다 크기가 작고 신맛이 있으면서 비타민 B와 C가 많아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FTA 관세 따져보고 EU 소비시장 관심들 코트라 광주 수출설명회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2 하반기 해외시장별 수출확대 설명회 및 상담회'를 열고, 지방 중소기업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수출 타개책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지역 수출 중소기업 120여개 업체가 참석했다. 임성필 코트라 북미지역본부장은 "한·미 FTA 발효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미국 기업이 많기 때문에 잠재 거래선에 FTA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특히 섬유류·자동차 부품·기계류 등 관세인하 혜택이 큰 분야와 정부조달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중태 유럽지역본부장은 "EU 재정위기로 중산층의 구매 패턴이 생계형 소비로 치우치고 있다"며 "공공조달·대형유통망·지식서비스·그린산업·글로벌 아웃소싱 등 5곳을 공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윤희 중국사업단 과장은 중국시장 수출확대 방안으로 아직 견조한 소비행태를 보이는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주문했다.

코트라는 중국·일본·EU·중남미 등 맞춤형 개별 상담회와 산업별 수출 전략 컨설팅도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소비 위축 경기침체 국세 징수실적 부진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 위축으로 올해 국세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5월 말 현재 세수 실적은 91조 1천억 원으로 목표 대비 진도율이 47.3%를 기록했다"라며 "이는 작년 동기 진도율(48.1%)에 못 미친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소관 올해 세입예산은 192조 600억 원이다. 작년(180조 2000억 원)보다 6.9% 늘었다. 세수 감소는 유로존의 재정위기와 글로벌 성장 둔화 등 대외여건이 악화한데다 소비위축에 따른 국내 경기 부진 때문이다. 성실신고확인제 시행으로 종합소득세 징수시기가 일부 늦춰진 점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생산차질 피해 현실화 교체용 타이어 생산 중단 거래처 해약사태

금호타이어 노조의 부분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타이어 공급을 제때 못해 거래선이 끊기는 등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26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급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금호타이어 노조)가 부분파업에 돌입하면서 이날까지 약 8일분의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 생산 손실액은 4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생산 차질에 따라 주문량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서 교체용 타이어와 관련된 거래선이 끊기는 등 우려했던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파업 장기화로 생산이 턱없이 부족해 자동차 회사에 공급하는 신규 차량용 타이어 생산에 차질이 있다"며 "교체용 타이어 공급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거래처 해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측은 다음달 1~5일 여름휴가 가운데 1일과 2일을 반납, 일반직과 비조직원들을 중심으로 공장 가동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노조는 여름휴가를 강행하고, 휴가 이후 사측이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전면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조와 사측은 이날 각각 보도자료를 내 '임금' 공방을 벌였다. 노조는 "6년차 월급이 100만원, 24년차는 160만원 그치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생활고를 호소했다.

반면 사측은 "우리나라 제조업 기능직의 평균 임금이 연 3720만원인데 비해 금호타이어 기능직은 4710만원에 달한다"며 "광주지역에서도 기아차·캐리어 다음으로 높다"고 반박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Table with economic indicators: 코스피지수 1,782.47 (+13.16), 코스닥지수 457.86 (+3.14), 금리 (국고채 3년) 2.81% (+0.03), 원·달러 환율 1,146.90원 (-4.30)

광주·전남 무역수지 5개월 연속 흑자

6월 2억400만 달러...전남 적자 규모 소폭 줄어

지난달 광주·전남의 무역수지가 유럽 금융위기에 미국, 동남아 등 FTA지역 수출호조에 힘입어 지난 2월 이후 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남미, 동남아 수출 증가로 전월 대비 2.3% 감소한 5억6200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소한 35억8200만달러,수입 역시 6% 감소한 41억44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중남미, 동남아, 미국, 일본의 수출은 증가했지만 중국, EU 수출은 줄어 들었다. 전남의 수출품목은 석유제품, 철강, 기계류와 정밀기기는 증가했으나 화공품과 선박이 감소했다.

한편 주요 FTA 지역 6월 수출입 동향은 광주지역 대비 수출은 3억3600만달러, 수입은 5600만달러로 2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남의 대비 수출은 2억3300만달러, 수입은 1억4100만달러로 나타났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5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6월 광주·전남의 무역수지는 수출 47억 5500만달러, 수입 45억5100만달러로 2억 4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지난 2월 이후 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무역수지는 전월대비 1.4% 감소한 7억66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전남의 무역수지는

광주·전남 기능장1호 대산프리모남녀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50만원~ 특가가발 발매!! 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대한방과후교육협회 발기인 대회 및 사업설명회 안녕하십니까! 사)대한방과후교육협회에서 지역 교육을 이끄시는 저명한 분들을 모시고 방과후 교육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현 교육의 현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또한 미래교육을 설계하고 비전을 제시할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시어 고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향후 전국 지부망을 통해 조직적인 활동으로 내실 있고 체계적인 방과후 교육을 선도하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협회 회원, 본과장, 지부 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전· 현직 교육계 저명인사 회장 및 고문, 이사, 자문위원참여) 일 정: 8월 16일(목) 14:00~16:00 (광주·전남 동시 실시) 장소: 광주교육대학교 대강당 문의: (사)대한방과후교육협회 062) 268-0978, 011-434-4837